

## 近代 韓日關係 史料와 그 活用に 대하여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및 刊行資料를 中心으로—

羅 愛子

### 1. 所藏資料의 種類와 特徵

-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2) 朝鮮史編修會 資料
  - (1) 寫眞·琉璃필름 資料
  - (2) 『古書目錄』에 收錄된 資料
- 3) 奎章閣 資料

### 2. 資料集 刊行現況과 問題點

- 1) 韓國史料叢書
-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3) 『各司謄錄』

### 3. 情報化時代의 史料 電算化

### 4. 近代 韓日關係史 研究事例

### 1. 所藏資料의 種類와 特徵

國史編纂委員會(以下 國編으로 줄임)에 所藏되어 있는 近代 韓日關係史料는 크게 朝鮮史編修會의 資料와 國編에서 蒐集한 資料로 나눌 수 있다. 朝鮮史編修會의 資料는 寫眞·琉璃 필름 資料와 古書로 이루어지는데, 解放後 國編에서 朝鮮史編修會의 資料를 引受하면서 國編이 所藏하게 되었다.

####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1) 所藏經緯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朝鮮史編修會의 琉璃필름 資料에 包含되지만, 資料量과 史料의 重要性에 비추어 別途로 言及하기로 한다. 이 記錄은 1894~1910年 韓日合邦에 이르기까지 17 年間에 걸친 駐韓日本公使館·統監府의 秘密文書로서, 原本은 朝鮮總督府 文書課에 秘藏되

어 있었다. 第2次世界大戰中 朝鮮史編修會에서는 그 原本을 寫眞으로 複寫하여 따로 保管하고 있었다. 그 後 敗戰을 맞게 된 日帝는 그들의 侵略政策을 隱蔽하기 위하여 施設을 破壞하고 各種 秘密文書를 湮滅하였는데, 이 記錄의 原本과 寫眞複寫本도 이때 燒却되었다. 當時 朝鮮史編修會에 몸담고 있던 故 申奭鎬先生은 이 記錄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미처 毀損되지 않은 寫眞原板을 日本人들의 눈을 피하여 밤새 中樞院書庫로 옮겨 놓았다. 그는 日本人들의 追窮을 피하기 위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00余 箱子에 달하는 이 記錄을 지켰다고 한다. 그 後 申奭鎬先生은 國史館 일을 맡게 되자, 이 寫眞原板을 國史館으로 옮겨 왔다. 이어서 미국 Stanford 대학 Hoover研究所의 支援을 받아 琉璃필름을 印畫 保管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國編 所藏本이다.<sup>1)</sup>

## (2) 主要內容과 特徵

寫眞本 481冊에 달하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駐韓日本公使館·領事館과 日本外務省 間, 또는 各國駐在 日本公使館·領事館과 日本外務省 間等に 頻繁하게 주고받은 秘密電報·公文들로 構成되어 있고, 日本警視廳 및 憲兵隊의 秘密文書도 포함되어 있다. 이 記錄이 研究者들의 注目을 받기 시작한 것은 李鉉淙先生이 總目錄과 本文의 內容要目を 整理, 紹介하면서 부터이다.<sup>2)</sup>

이 記錄에는 甲午農民戰爭, 淸日戰爭, 甲午改革, 明成皇后弑害事件, 鐵道敷設 및 電線架設, 借款導入, 各地租借問題, 間島問題, 露日戰爭, 統監府設置問題, 韓日議定書·乙巳條約·韓日新協約 等 韓日間의 各種 協定書, 一進會關係, 在外韓國人問題, 宗教問題, 高宗의 強制退位關係, 大韓每日申報 等 言論關係, 湖南義兵討伐作戰, 安重根義舉, 國權侵奪 等 政治·軍事·經濟·文化等 各 分野에 걸친 日本의 對韓 侵略政策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韓國侵略을 위한 事項이면 아무리 些少한 問題라고 하더라도 매우 詳細한 內容의 文書로 發受信되고 있고, 密談이나 修正되기 以前의 草案들이 많아 政策의 執行過程은 물론 樹立過程까지도 알 수 있다. 또 이 記錄에는 當時 駐韓 日本外交官들이 韓國의 政治勢力이나 列強의 動靜에 대해 細密한 情報를 入手하여 本國에 報告하고 迅速하게 對應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韓日關係史를 비롯한 國際關係史, 政治史·經濟史 等 韓國近代史研究에서 基本的인 資料이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日本外務省에서 刊行한 『日本外交文書』와 重複되는 부분이 多少 있으나, 韓國關係 資料가 훨씬 豊富하다.

## 2) 朝鮮史編修會 資料

朝鮮史編修會는 日帝가 同化政策의 一環으로 推進한 『朝鮮史』編纂의 圓滑한 遂行을 目的

1) 李鉉淙,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史學研究』 第1輯(韓國史學會), 1958.

國史編纂委員會 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第1冊序(國譯本), 1986.

2) 李鉉淙,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史學研究』 第1輯~3輯, 1958~1960

으로, 1925年 朝鮮史編纂委員會에서 職制 改編된 植民史學 研究機關이다. 朝鮮史編修會는 總督直屬의 獨立官廳으로서, 中樞院의 '史料의 蒐集·編纂' 機能을 倂어 받았으나, 實際 業務는 從來와 같이 中樞院에서 取扱하였다. 朝鮮史編修會는 『朝鮮史』의 刊行을 위해 必要한 資料蒐集에 走力하여 刊行이 完了된 1938년까지 圖書 4,950冊, 寫眞 4,510卷, 文卷·畫像·扁額 등 453점의 資料를 蒐集하였다.<sup>3)</sup>

### (1) 寫眞·琉璃 필름 資料

國編은 1995년부터 朝鮮史編修會에서 所藏하고 있던 寫眞資料와 琉璃 필름 原板의 整理, 解題作業에 着手하고 資料를 畫像入力하는 한편, 이를 總體的으로 살필 수 있는 目錄集을 1998년에 刊行하였다.

『寫眞·琉璃 필름目錄』(上·下)은 이미 影印本으로 刊行된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을 除外한 琉璃 필름과 寫眞資料에 대한 總目錄이다. 이 目錄에 收錄된 寫眞資料는 朝鮮史編修會가 1927年 5月~1935年 9月 朝鮮·日本·滿洲地方에 散在해 있던 史料를 蒐集·撮影한 것(2,263種 5,580件)과 近來 蒐集한 美國 國會圖書館 所藏 近代關聯 資料(121件)로 構成되어 있다. 4,802件에 달하는 琉璃 필름資料는 많은 部分이 寫眞資料와 重複되고, 976件의 資料는 새로운 것이다.

『寫眞·琉璃 필름目錄』은 資料를 크게 古書, 古文書, 近代文書, 金石, 遺物·遺蹟, 書畫, 人物, 其他로 分類하였다. 記入方式은 各資料의 題名, 登錄·請求番號, 著者 및 發受給者, 年度, 數量, 表記言語, 對照事項, 註記事項, 所藏處 또는 所在地, 資料說明 등으로 이루어져 資料의 內容을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다.

近代韓日關係 資料는 琉璃 필름에 훨씬 많이 있으므로 琉璃 필름目錄을 中心으로 살펴보겠다. 古書로 分類된 資料는 部分 撮影한 것이므로 資料로 活用하는 데 限界가 있는데, 近代關聯資料는 거의 없다. 近代文書는 目錄의 '對外關係文書' 項目에 40餘種이 集中的으로 分類되어 있고, '國王文書' '官府文書' '人物寫眞' '事件' 등의 項目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主要資料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877年 朝日文書」(朝日修好條規의 締結 後 後續措置를 다룬 文書), 「1882年 壬午軍亂 關聯 日本側 文書」, 「美國修好事에 관한 外交文書」(東萊府使가 美國商船의 釜山港 入港을 拒絶한 데 대해 日本外務省이 仲介者로서 國際狀況을 說明하면서 美國과의 通交를 勸誘하는 外交文書), 「防穀令으로 인한 損害賠償要求 第32號」(1893年 威鏡道觀察使 趙秉式의 防穀令으로 인한 日本商人들의 損害賠償要求에 대해 日本側이 朝鮮政府의 解答을 促求하는 內容의 文書), 「俄日密約條款에 대한 朝鮮의 方策을 살핀 文記」(三國干涉 以後 締結된 露·日間の 密約이 朝鮮 臣民의 忿怒를 사고 있음을 밝히고 서울에 駐在하는 各國 公使들에게 그 內容을 暴露하면서 朝鮮이 이를 承認할 수 없음을 協商코자 하는 方策을 살핀 文記), 「甲申政變 關聯 朝日 談話草記」(草記의 著者인 朝鮮官吏가 甲申政變時 日本公使館의 被害狀況과 그 處

3) 金性玟, 「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韓國民族運動史研究』 3, 1989.

理問題에 대해 日本公使 竹添進一郎과 談話한 草記), 「京釜鐵道 敷設關聯 談草」等이다. 이 밖에 兩國 外交官의 人事에 관한 것이 많다.

「崔益鉉의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1896年 崔益鉉이 宣諭大員을 除授받자 辭退하면서 時弊의 是正과 日本 排擊을 請한 上疏), 「全琫準 上書文」(1894年 兩湖倡義領首 全琫準이 湖南巡相에게 日帝의 侵奪을 警戒할 것을 促求한 上書文), 金玉均·洪英植의 書簡 등 個人文 書類와 「東道倡義所 告示」 등 東學關係 文書 等에서도 韓日關係의 斷面을 엿볼 수 있다. 또 江華島條約을 強要하면서 釜山 앞바다에 集結하여 示威하는 日本艦隊의 모습을 담은 寫眞 2 점과 條約締結 때 온 日本人이 찍은 20餘 점의 江華古府의 寫眞이 琉璃필름으로 남아 있고, 寫眞資料로 雲楊艦圖가 있다.

修信使 金綺秀, 金玉均·魚允中·兪吉濬·尹致昊 等 開化派, 外務顧問 스티븐스, 스티븐스를 狙擊 射殺한 張仁煥·田明雲 等 近代 人物의 寫眞이 豊富하다. 1905年 以後 「京釜鐵道開通式」, 「高宗退位 후 伊藤統監의 退闕」, 「西小門通 日本 憲兵의 警戒」, 「日本皇太子 韓國行啓圖」(1907年 丁未七條約)締結 後 大正 皇太子 가 慶運宮에 來訪한 情景) 등의 各種 資料도 當時의 韓日關係를 象徴적으로 보여준다.

## (2) 『古書目錄』에 收錄된 資料

朝鮮史編修會에 所藏되었던 古書는 國編에서 蒐集한 古書와 奎章閣等圖書의 電子複寫本, 古書を 撮影한 寫眞本 等과 함께 다음의 目錄에 收錄되어 있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古書目錄』, 1983.

이 目錄에 收錄되어 있는 資料는 總4,175種 19,569冊이다. 이 中 中樞院圖書는 1,508種 4,773冊인데 대개 古書에서 複寫하거나 拔萃한 것이며, 朝鮮史編修會에서 筆寫한 것도 相當數에 달한다. 주로 『朝鮮史』 編纂을 目的으로 蒐集하였기 때문에 冠婚喪祭 等 各種 風習과 身分關係, 財産·祭祀相續, 土地所有關係, 契 등 全分野에 걸친 韓國社會의 調查資料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個人文集도 많다.

反面 近代 韓日關係資料는 貧弱하다. 目錄에서 正書類(外交·通商·通信)와 地理類(遊記)로 分類되어 있는데, 『代理公使渡韓始末(副本)』(1880年 寫),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1879), 『代理公使朝鮮日記』(1877, 1937年寫) 等 日本公使의 記錄과 『同文彙考』, 『倭使入天然亭問情記』(1879, 1928年寫), 『東京日記』(1881, 1940年寫), 『聞見事件』(閔鍾默著, 1943年寫) 『日本聞見事件草』(趙準永 等編, 1943年寫) 等이 있다.

## 3) 奎章閣 資料

國編에서 蒐集한 奎章閣 資料는 朝鮮史編修會의 筆寫本과 國編에서 『各司謄錄』 等を 刊行하기 위해 奎章閣에서 複寫해온 電子複寫本이므로, 史料로서의 價値는 떨어진다. 『各司謄錄』

으로 刊行된 奎章閣資料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古書目錄』이 刊行된 後 奎章閣圖書의 複寫蒐集 現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近代外交·通商關係 文書는 거의 蒐集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參考로 奎章閣의 韓日關係 資料에 대하여 다음의 目錄을 중심으로 紹介하기로 한다. 서울大學校 奎章閣은 인터넷을 통해 所藏資料의 檢索과 함께 資料의 解題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이를 利用하는 것이 便利하다.

서울大學校圖書館 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索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3.

(總 33,088種, 113,820冊 收錄)

서울大學校圖書館 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第IV~VII輯(史部 1~4), 1981~1984.

서울大學校圖書館 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索引』, 1987.

正祖가 奎章閣을 設立할 當時(1776) 約 1萬餘 冊이었던 奎章閣圖書 韓國本이 이처럼 大해진 것은 以後 購入하고, 다른 圖書와 記錄들이 奎章閣圖書에 編入되어 왔기 때문이다. 奎章閣이 1910年 韓日合邦 때 廢止된 後, 所藏圖書는 李王職 圖書館에서 管理하다가 1911年 6月 朝鮮總督府 取調局에서 強制로 引受하였다. 이 때 李王職은 圖書와 記錄을 朝鮮總督府에 모두 넘겨주지 않고 그 一部를 別置하였다가 後에 藏書閣圖書를 設置하였다(現在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管理). 1928년부터 奎章閣圖書는 京城帝國大學이 管理하였고, 解放後 서울大 中央圖書館에서 管理하다가 1992年 奎章閣이 中央圖書館에서 獨立하면서 서울大奎章閣 管理體制로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4)</sup>

奎章閣圖書 韓國本에는 元來의 奎章閣圖書뿐 아니라 一蓑文庫古圖書, 가람文庫古圖書, 想白文庫古圖書, 經濟文庫古圖書 등의 文庫本古圖書와 解放 以前·以後에 蒐集한 古圖書가 包含된다.

서울大圖書館에서 四庫全書總目的 四部分類法을 參考로 하여 만든 分類法에 의하면, 近代 韓日關係 資料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史部, 政法類> 중 < 외교·통상 > < 官署文案 > 項目에 集中的으로 收錄되어 있다. 日記類는 < 雜史類 >로 分類되어 있다.

< 史部, 政法類 > 中 < 外交·通商 > 項에서 '外交一般'에 關聯된 資料로는 開港 以前 事大交隣關係下의 外交文書集인 『邊例集要』과 高宗年間까지의 對外關係文書を 集大成한 『同文集考』, 『國書』, 『章約合編』, 『書契所報關錄』 등이 있다.<sup>5)</sup>

4)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第5輯,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解題」, 『奎章閣圖書韓國本の 沿革』, 서울大學校 圖書館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1983.

韓永愚, 「奎章閣 資料의 整理와 活用」, 『光復後 50年間の 史料編纂事業의 成果와 課題』, 國史編纂委員會 光復 50週年紀念 第21回韓國國史國際學術會議 發表文, 1995.

5) 國編에서는 史料의 價値가 높은 『邊例集要』와 『同文集考』는 韓國史料叢書로, 『書契所報關錄』은 『各司牒錄』으로 간행하였다.

‘外交文書’는 原則적으로 開港 以後의 것만 局限시켜 國家別로 分類하였다. 條約·合同·章程·契約·議定書·約定書·協定書·覺書 等の 外交·通商關係 文書가 網羅되어 있는데, 이 中 日本關係는 150餘 種에 달한다. 朝日修好條規와 朝日貿易規則(1876), 朝日通商章程(1883), 釜山口設海底電線條約續約(1885), 朝日暫定合同條款(1894), (韓日)議定書(1904), [乙巳條約](1905), 日韓協約(1907), [韓日合邦條約](1910) 等の 外交文書는 韓國의 主權喪失過程을 그대로 보여준다.<sup>6)</sup> 또 鐵道敷設權·魚採權·租借權, 荒蕪地開拓權 등 利權侵奪關係와 借款·貿易關係, 日本人顧問官·教師 等の 雇聘約定 等に 관한 外交文書도 많다. 韓日間에 去來한 公文書를 모은 『日案』은 原案(41冊)·謄本(78冊)·寫本(24책) 等으로 남아 있는데, 그 內容이 매우 多樣하고 豊富하다.<sup>7)</sup> 當時 韓日 兩國이 各種 懸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外交官署記錄’으로 分類되어 있는 『統理交涉事務衙門日記』(73冊)·『外務衙門日記』(18冊)·『交涉局日記』(27冊)·『通商局日記』(4冊) 等은 日本을 包含한 外國과의 外交·通商關係의 重要 資料이다.<sup>8)</sup>

‘見聞·交涉’ 項은 外交的 交涉·海外見聞·視察記錄 等を 中心으로 編成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資料들을 重點적으로 活用한 研究事例를 紹介하면서 뒤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史部, 政法類> 中 <官署文案> 項에는 特定 主題나 內容에 따라 分類하기 어려운 各 官衙의 記錄 및 報告文類로 編成되어 있다. 주로 開港 以後의 記錄이 中心이고 各 地方에서의 外國人問題 등 社會變化相이 仔細히 나타나고 있다. 이 中 相當數의 資料가 『各司謄錄』으로 刊行되었다.

## 2. 資料集 刊行現況과 問題點

### 1) 韓國史料叢書

韓國史料叢書는 國編의 刊行事業의 첫 事業으로서 1955년부터 刊行되기 始作하여 總42種이 나왔다. 새로 發掘, 蒐集한 資料를 中心으로 刊行되었기 때문에 學界로부터 좋은 反應을 얻어왔다. 특히 開港後 對外交涉이나 開化運動에 參與하고, 義兵鬪爭等 抗日運動을 展開한 人物들의 個人記錄類를 중심으로 資料集이 編纂됨에 따라 새로운 歷史的 事實이 밝혀지고 再照明되어 韓國近代史 研究가 活性化되었다. 最近에는 주로 鄉土史關係 等 前近代資料가

6) 1990年代初 奎章閣에서는 乙巳條約·丁未七條約 等の 條約原本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 條約의 名稱을 붙이지 못한 點이나 署名 僞造 等 여러 問題點을 들어 條約成立與否에 대해 疑問을 表明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泰鎭編著, 『日本의 大韓帝國 強占-“保護條約”에서 “併合條約”까지』, 가치, 1995 參照.

主要條約은 大韓民國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에서 編纂한 『舊韓末條約彙纂』(上·中·下, 1964)에 收錄되어 있다.

7)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는 3種의 『日案』을 綜合하고 年月日로 整理, 編纂하여 『舊韓國外交文書』의 하나로 『日案』을 刊行하였다.

8) 이 資料들은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1972~1974)로 編纂하였다.

刊行되고 있는데, 새로운 資料의 發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史料의 價値가 높은 資料의 刊行을 위해 長期的 計劃下에 폭넓은 史料調査·蒐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叢書를 刊行하는 데 底本이 된 것은 著者들의 後孫이나 史學者 등 個人所藏 原本이나 副本, 朝鮮史編修會·奎章閣 등의 圖書이다. 原本을 再編輯하고, 誤字·脫字·人物의 號나 字, 年代의 干支 등에 各各 傍註를 달고 句讀點을 찍었으며, 頭註를 표시하여 資料利用의 便宜를 圖謀하였다.

다음은 韓國史料叢書 中 開港後 韓日關係의 變化를 살펴볼 수 있는 資料를 整理한 것이다.

著者名 (生沒年代)	書名	冊數	收錄年代	主要內容	叢書卷數 (刊行年度)
黃玟 (1855~1910)	梅泉野錄	1冊	1864~1910	大韓帝國末 詩人으로서 節死한 黃玟이 韓末의 政治·經濟·外交·文化 등의 事實을 記錄한 史書.	第1輯 (1955)
宋相燾 (1871~1946)	騎驢隨筆	1冊	1866~1945	義兵 等 日帝와 鬪爭한 愛國志士들의 事蹟을 平生 蒐集, 編纂한 著書로, 特히 義兵研究에 貴重.	第2輯 (1955)
李沂 (1848~1909)	海鶴遺書	1冊		田制 등 各種 制度의 改革을 論한 글과 書簡文 등을 모은 遺稿集으로, 韓末 政治·經濟·文化·思想 등을 研究하는 데 重要.	第3輯 (1955)
張志淵 (1864~1921)	韋庵文稿	1冊		皇城新聞 社長이었던 張志淵의 遺稿를 모은 文集으로, 近代史 研究에 重要.	第4輯 (1956)
鄭喬 (1956~1925)	大韓季年史	2冊	1864~1910	獨立協會運動 등 著자가 直接 經驗한 事實을 상세히 기록한 當代史로, 近代史 研究에 重要.	第5輯 (1957)
魚允中 (1848~1896) 金允植 (1835~1920)	從政年表· 陰晴史	1冊	1868~1893 1881~1883	『從政年表』는 魚允中이 關與한 朝美·朝清間의 外交問題 등을 詳細히 記錄한 日記. 『陰晴史』는 金允植이 淸에 領選使로 派遣되었을 때, 列強과의 條約締結 등에 대해 詳細히 記錄한 日記. 近代外交史 研究에 貴重.	第6輯 (1958)
閔泳煥 (1861~1905)	閔忠正公遺稿	1冊		乙巳條約締結에 抗議하며 殉節한 閔泳煥의 遺文을 編輯한 것으로, 大韓帝國의 對外關係와 抗日運動 등 近代史 研究에 貴重.	第7輯 (1958)
金綺秀 (1832~?) 金弘集 (1842~96) 朴泳孝 (1861~1939)	修信使記錄 (日東記遊· 修信使日記· 使和記略 合 本)	1冊	1876 1876 1880 1882	日東記遊와 修信使日記 卷 1은 最初의 修信使로 日本에 갔다온 金綺秀의 見聞記. 修信使日記 卷 2는 金弘集이 朝美修好通商條約 締結問題와 關聯하여 修信使로 日本에 갔다온 事實을 記錄. 使和記略은 濟物浦條約에 의해 修信使로 日本에 갔다온 朴泳孝의 記錄. 韓日關係史 등 外交史와 開化派研究에 貴重.	第9輯 (1958)
	東學亂記錄	2冊	1894~1895	『甲午實記』, 『兩湖招討騰錄』, 『全球準供草』 등 甲午農民戰爭 關係 27種의 史料를 蒐集, 編纂.	第10輯 (1959)
金允植 (1835~1921)	續陰晴史	2冊	1887~1921	甲午農民戰爭, 淸日戰爭, 甲午更張, 乙未事變, 俄館播遷, 1901年 濟州道民亂 等 重要事件과 當時의 社會相을 詳細히 記錄한 日記.	第11輯 (1960)
編者未詳	邊例集要	2冊	1598~순조 조	壬辰倭亂以後 200餘年間의 差倭·漂倭·約條·書啓·路引·公貿易·開市·倭館·問情 等 朝日間의 交涉을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對外關係資料.	第16輯 (1970~71)
尹致昊 (1865~1945)	尹致昊日記	11冊	1883~1943	甲申政變, 甲午改革, 獨立協會運動 等に 參與한 尹致昊의 日記로, 그가 經驗한 歷史의 事實들이 詳細히 記錄되어 韓國近代史 研究에 貴重.	第19輯 (1973~89)

著者名 (生沒年代)	書名	冊數	收錄年代	主要內容	叢書卷數 (刊行年度)
尹致昊 (1865~1945)	尹致昊 書翰集	1冊	1888~1910	尹致昊 個人書信과 그가 美國公使 Foot의 通譯官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外交關係 公文書 收錄.	第20輯 (1980)
柳麟錫 (1842~1915)	昭義新編	1冊	1895	韓末 衛正斥邪를 主張한 代表的 儒學者인 柳麟錫을 中心으로 한 華西學派의 斥邪論과 義兵關係 資料集. 乙未義兵 研究에 重要.	第21輯 (1975)
金衡圭 (1861~1935)	青又日錄	1冊	1873~1884	江華島條約締結 前後의 서울의 動搖相, 壬午軍亂等 事件과 冠婚喪祭 等 當時의 風俗과 市井의 動態를 생생하게 記錄한 日記로, 社會史研究에 貴重.	第22輯 (1976)
李承熙 (1847~1916)	韓溪遺稿	9冊		性理學者이며 獨立運動家인 李承熙의 文集인 韓溪集과 大溪集을 再編執한 資料로, 日本의 侵略과 萬行을 糾彈하는 上疏와 姓名書·書翰 等을 收錄.	第23輯 (1976~82)
承文院 編	同文集考	4冊	1636~1881	朝鮮後期~開港後 對清 및 對日關係(琉球包含)의 外交文書와 附隨記錄를 集大成한 文籍으로, 總 96冊에 달하며 對外關係의 典故가 되었음.	第24輯 (1978)
宋近洙로 推定	龍湖閒錄	4冊	純祖初~ 高宗中期	80餘年間の 疏·劄·啓를 비롯한 對外關係·政治·經濟·文物 等에 관한 記錄이 收錄된 筆寫本으로, 「修信使入侍市筵說」·「倭人答書」·「日使井上馨所定約條」等 對日關係 記錄이 多數 있음.	第25輯 (1979~1980)
邊相楸(1818~86)·邊萬基(1858~1924)·邊昇記(1866~1937)	鳳棲·鳳南日記(晦山日記附錄)	1冊	(1873~77) (1894~1903) (1907)	全南 長成에서 世居했던 3人의 日記로, 甲午農民戰爭, 國債報償運動, 當時의 物價와 稅政 等에 대해 記錄한 社會史 및 稅政사 研究의 重要 資料.	第26輯 (1979)
朴周大 (1836~1912)	羅巖隨錄	1冊		雲揚號事件·江華島條約·壬午軍亂·甲申政變·乙巳條約·義兵鬪爭·巴里長書 등 主要事件과 情勢變化를 地方 선비의 視覺으로 記錄.	第27輯 (1980)
Owen N. Denny (1838~1900)	데니 文書	1冊	1886~1890	高宗의 顧問官을 지낸 美國人 데니의 韓國關係書翰과 新聞記事, 淸韓論을 收錄한 資料로, 當時 國內政治와 國際關係 研究 資料.	第28輯 (1981)
編者未詳	日新	1冊	1898~1902	獨立協會活動, 活貧黨, 鐵道敷設, 各港口의 開放 等 韓末 政治社會相을 記錄.	第29輯 (1983)
閔龍鎬 (1865~1922)	關東倡義錄	1冊	1895~1900	關東地方을 中心으로 義兵抗爭을 展開한 閔龍鎬의 親筆遺稿와 復齋集을 參朝해 關東倡義錄·西征日記·江北日記 등을 묶어 刊行. 義兵史 研究에 貴重	第30輯 (1984)
李晚燾 (1842~1910)	響山日記	1冊	1866~1903	開港後의 여러 事件, 儒生들의 斥邪上疏, 義兵鬪爭 等 政治社會相을 照明할 수 있는 資料.	第31輯 (1985)

##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1986年 寫眞本을 謄寫, 翻譯한 冊을 刊行하기 始作한 뒤 1988年 부터는 原本 影印을 並行하는 方式으로 刊行되었다. 그리하여 影印本은 1990年 40冊으로 完

刊되었고, 翻譯本은 11冊까지 나온 뒤 刊行期間의 短縮 등을 理由로 12~26冊은 謄寫本으로 換關 인쇄되었다. 그리고 1906年 1月31日 駐韓日本公使館이 閉鎖되고 統監府에서 그 業務를 맡았으므로, 以後 1906~1910年 統監府에서 生産한 資料는 1998년부터 『統監府文書』라는 冊名으로 刊行되어 2000년에 完刊할 豫定이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은 國編에 所藏되어 있는 유리필름 原板과 寫眞本, 미국 후버 研究所에서 유리필름을 印畫하고 가져간 寫眞本으로 남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各各 없어진 部分이 있으므로 相互 補完하여 刊行하였다. 또 資料가 毀損되어 不分明한 部分이 있는 境遇는 『舊韓國外交文書』·『日本外交文書』 등의 關係資料를 參酌하였으며, 『日本外交文書』에 收錄되어 있는 文件은 그 事實을 目次에 表示하였다. 그리고 題目이 없는 文件에는 作題하고 誤謬를 바로잡아 活用度를 높였다.

이 冊을 利用하는 데 아쉬운 點은 收錄된 文件의 總目錄이 없어 必要한 資料를 바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影印本과 翻譯本·謄寫本의 編輯體制가 달라 對照하며 閱覽하기에 不便함이 많다는 것이다. 讀者는 各 卷을 일일이 들춰봐야 하고, 翻譯本이나 謄寫本의 原本을 찾아 誤·脫字 등을 確認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1906年 以後의 資料를 엮은 謄寫本이 冊名을 『統監府文書』로 바꾼 데에는 合當한 理由가 있었지만, 미리 나온 影印本이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라는 冊名으로 一貫되게 刊行되었기 때문에 讀者가 混亂을 느낄 수 있다. 來年에 謄寫本이 完刊되고 索引集을 만들 때 이러한 點들을 考慮하여 資料를 보다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各司謄錄』

國編은 1955년부터 20餘年에 걸쳐 『朝鮮王朝實錄』·『備邊司謄錄』·『承政院日記』 등 年代記를 간행한 데 이어서 1981년부터 『各司謄錄』을 刊行하기 始作하여 1998년까지 總91冊을 엮었다. ‘各司謄錄’이라는 用語는 實錄 등 年代記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國編에서 任意로 붙인 이름이다. 이 用語는 이미 刊行한 『備邊司謄錄』·『承政院日記』를 除外하고 朝鮮時代의 中央과 地方의 모든 公的 機關의 記錄類를 網羅한다는 意味에서 붙인 것이다. ‘各司謄錄’을 “中央과 地方의 各 官廳에서 典故를 위해 謄寫, 備置해둔 記錄”<sup>9)</sup>이라고 概念定義하는 視覺도 있지만 이보다 廣義로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各司謄錄’에 속하는 記錄은 朝鮮後期 以後 議政府 以下 6曹를 비롯한 中央衙門과 8道 監營 아래 府·牧·郡·縣 등의 官衙와 兵營·水營等 法典에 規定된 모든 官廳에서 生産한 謄錄·啓錄·關草·訓令·牒報·關錄·存案·報聚·來牒·來去案·狀錄·奏本·密啓·記錄·日記·別單·郡市案·港案·訴狀 등 매우 多樣하다.

‘各司謄錄’은 奎章閣과 藏書閣에 集中的으로 所藏되어 있고, 各 官廳의 各種 庶政에 대한 直接的인 記錄이 많이 包含되어 있다. 承政院이나 備邊司에서 論議된 案件의 大部分은 各司

9) 金仁杰 外, 『各司謄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研究支援報告書, 1998, 3~8쪽.

에서 올린 報告書에 의한 것이고, 그밖에 中央에 報告되지 않은 記錄이 많이 있다. 따라서 '各司謄錄'은 地方史研究의 豊富한 資料가 된다. 또 朝鮮後期 特히 近代的인 通商關係가 樹立되는 開港以後의 社會變化相을 나타내는 資料가 많으므로, 對外關係史·社會史·經濟史·運動史 研究에도 새로운 資料를 提供해준다.

이러한 特徵 때문에 『各司謄錄』은 地方衙門의 記錄類와 中央衙門에서 生産한 文書綴이라고 하더라도 地方事情을 잘 나타내주는 資料를 中心으로 '地方篇'이 먼저 刊行되었다. 1981~1991年 各道別로 刊行된 『各司謄錄』(地方篇)은 모두 55冊이고, 收錄된 資料는 560餘種에 달한다. 1992년부터는 中央衙門에서 生産된 謄錄類가 刊行되고 있는데(第56~91冊), 第63冊을 除外한 모든 冊이 前近代資料로 構成되어 있다.

第1~5冊(京畿道篇), 第6冊(京畿道·忠清道篇), 第7~10冊(忠清道篇), 第11~17冊(慶尙道篇), 第18~21冊(全羅道篇), 第22~26冊(黃海道篇), 第27~28冊(江原道篇), 第29~41冊(平安道篇), 第42~46冊(咸鏡道篇), 第47冊(京畿道補遺篇), 第48冊(忠清道補遺篇), 第49~52冊(慶尙道補遺篇), 第53~54冊(全羅道補遺篇), 第55冊(黃海道補遺篇)

倭館이 設置되어 있었고 가장 먼저 開港하여 日本人과의 接觸이 가장 活潑하였던 東萊府를 비롯한 慶尙道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主要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開港後 10年밖에 되지 않은 1885年段階에서 日本人資本은 이미 慶尙南道 全域에 걸쳐 浸透하고 있었다. 第50冊의 『日債報關錄』은 그러한 事實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885年 慶南의 여러 고을에서는 日本商人에게 돈을 빌려쓰고 제때에 갚지 못한 朝鮮人이 많았는데, 日本商人들은 日本總領事를 통해 該當朝鮮人을 逮捕할 것을 朝鮮政府에 要求하였고, 이에 政府는 이들을 押送措置할 것을 각 都護府·郡에 지시하였다. 이 冊은 그 公文과 該當府·郡의 報告를 모은 것으로, 關聯者의 名單과 債務額이 記錄되어 있다.

第13冊의 『書契所報關錄』은 1874~1894年 東萊府 書契所의 公文을 모은 冊으로, 書契所의 報告文書와 議政府의 決裁文書를 함께 신고 있다. 이 冊에는 開港前 日本船의 漂流問題, 日本과의 公貿易, 開港後 日本이 設置한 海底電信線問題, 日本貨幣와 韓國貨幣와의 交換問題 등에 관한 文書가 많아 釜山港을 中心으로 한 日本과의 交涉 및 紛爭과 政府의 政策을 살필 수 있다. 『釜山港關草』는 1887~1895年 釜山監理署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間에 오고간 關文의 草錄을 모은 것이다. 韓國漁民과 日本漁民間의 紛爭과 韓國漁民의 被害狀況, 日本人들이 韓國農民과 商人들에게 부린 橫暴와 行悖, 日本人의 沿海 任意貿易 등에 관한 事項 등이 있다. 『慶尙道關草』는 1886~1895年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慶尙監營을 비롯한 慶尙道 各官衙間에 往來한 關牒·報題를 모은 冊이다. 주로 日本人과의 通商上 摩擦, 債銀, 魚採, 漂流問題 등 慶尙道地方의 對日 交涉關係 記錄이 많이 있다.

第15冊의 『慶尙南北道來去案』은 1896~1909年 外部와 慶尙南北道 各地方官衙間에 오고간 報告書와 訓令을 모은 것이다. 日本軍과 交戰한 義兵, 日本人 漁業關係, 防穀令撤回訓令, 露

日戰爭時 日本軍의 武器庫 襲擊과 武器奪取, 京釜鐵道敷設時 日本人들의 行悖, 日本人과 住民들간의 빈번한 衝突, 日本商人과 採鑛業者의 勢力浸透等の 사항이 있다.

이밖에 各港·道の 關草와 訓令, 報牒, 來去案, 港案, 啓錄 등 여러 記錄에서 開港後 韓日間の 不平等한 通商關係가 進展됨에 따라 韓日 兩國民間的의 各種 紛爭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商權·魚採權·鑛山開發權·鐵道敷設權·沿岸海運權 等を 둘러싼 兩國民間的의 利害關係의 代立과 經濟的 侵奪, 不平等條約의 制約아래 無力한 韓國政府의 對應策, 이에 激化된 韓國國民의 反日感情이 甲午農民戰爭이나 義兵抗爭으로 爆發하는 現狀은 당시의 韓日關係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各司謄錄』의 刊行方式은 몇 차례 變更되었다. 1992년까지는 文書의 크기가 가지각색이고 判讀하기 힘든 亂草도 있어 外形의 體裁를 갖추고 讀者의 便宜를 위해 資料를 모두 原稿紙(570자)에 楷書로 옮기고, 句讀點을 찍어 影印本으로 刊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方式은 資料의 原形을 잃는 問題가 있으므로, 1993년부터 原本을 縮刷影印하되 句讀點을 찍고 亂草로 된 部分은 楷書體로 脫草해 新는 方式으로 轉換하였다. 1997년부터는 資料의 DB構築과 費用節減을 위해 電算入力方式으로 다시 바꾸었다. 1992년부터 刊行된 中央篇에는 解題와 함께 內容目次를 달아 資料의 活用度가 提高되었다.

既刊行 『各司謄錄』(地方篇)은 資料에 대한 充分한 調査와 研究가 뒷받침되지 못한 狀態에서 刊行되었기 때문에 資料選別이나 編輯體制에서 問題點이 發見되고 있다. 이러한 誤謬를 바로잡고 長期的 計劃下에서 效率的으로 刊行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1997年 韓國史研究支援事業의 一環으로 「各司謄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프로젝트를 施行하였다. 現在 『各司謄錄』 刊行事業은 이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推進되고 있다. 그리고 從前에는 既刊行本의 總目錄이 없어 利用하기가 不便하였는데, 國編 인터넷 홈페이지의 '所藏資料檢索'을 통해 必要한 資料가 몇 輯에 收錄되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 3. 情報化時代의 史料 電算化

國編은 情報化時代를 맞이하여 所藏史料의 目錄과 電算化된 刊行物, 畫像入力한 資料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古書目錄』·『寫眞·琉璃 필름目錄』 외에도 『古文書目錄』·『對馬島宗家文書 古文書目錄集』·『마이크로필름』目錄 등을 檢索할 수 있다. 寫眞·琉璃필름資料는 畫像으로 볼 수 있다.

龐大한 資料를 圖書形態로 刊行하는 데에는 莫大한 豫算과 많은 人力이 投入되어야 하므로, 事業이 長期化되는 問題가 있다. 國編에서는 豫算의 節減과 刊行期間의 短縮, 資料의 DB構築을 위해 史料의 電算化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今年에는 情報通信部의 支援으로 10萬餘枚에 달하는 '各司謄錄' 謄寫原稿 中 史料의 價値가 높은 近代資料를 選別하여 電算入力하고 內容目次 등 文件別 目錄을 작성하여 DB化하는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來年中으로 그 成果物을 인터넷을 통해 公開할 豫定이다. 現在 마무리 段階에 있는 이 資料 中에는 韓日關

係 資料도 많이 包含되어 있다.

史料의 電算化는 우리나라의 國家的 事業으로 擴大 發展되어 가고 있다. 今年 12月부터 着手하는 '韓國歷史 情報 統合시스템 構築事業'은 向後 數年間 國史編纂委員會·서울大學校 奎章閣·民族文化推進會·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公同主管에 의해 推進될 예정이다. 이 事業이 圓滑하게 進行되면, 韓國史關聯 史料에 대한 機關·研究者間 情報交流가 促進될 것이고, 韓國史研究의 生産性 增大와 史料調査 및 蒐集의 科學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 4. 近代 韓日關係史 研究事例

1840年 阿片戰爭 以來 東아시아에서는 中國中心의 傳統的인 華夷秩序가 武力을 앞세운 西歐列強의 侵略에 의해 解體되어 西歐中心의 萬國公法의 國際秩序가 形成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朝鮮과 日本의 關係도 交隣關係에서 不平等한 關係로 變化하였고, 兩國의 役割도 달라졌다.

近代 韓日關係史 研究는 주로 政治外交史의 觀點에서 다루어졌고, 日本을 비롯한 列強과의 接觸이 頻繁해지면서 달라지는 朝鮮人의 對日認識의 變化에 대한 研究도 進展되고 있다.<sup>10)</sup> 1881年 日本에 派遣되었던 '朝士視察團'(所爲 '紳士遊覽團')의 朝士들이 남긴 記錄(奎章閣所藏)을 통해 그들의 對日觀과 開化政局에 미친 影響에 대해 다른 研究事例를 紹介하고자 한다.<sup>11)</sup>

朝士視察團이란 1881年 4月~7月 約 3個月에 걸쳐 明治日本의 西歐化된 文物·制度를 組織적으로 視察하고 돌아온 64名(日本人 通譯 2人 包含)을 가리킨다. 朝士는 公式 職銜이 "東萊暗行御史"이고 一種의 遣外使節이었기 때문에 暗行御史나 通信使·燕行使의 復命時 常例에 따라 特別히 詳探하도록 指示받은 日本의 實情全般에 關係 調査한 結果를 '聞見事件'이라는 題目의 書啓로 報告하였다. 現在 姜文馨·李鏞永·閔種默·嚴世永 4 朝士의 경우는 그 제목의 正本 報告書가 남아 있고, 朴定陽·趙準永·沈相學 3 朝士의 경우는 草本만 남아 있다. 魚允中은 주로 日本의 經濟에 관한 『財政見聞』이라는 書啓를 進呈하였다.

또 朝士들은 各各 日本의 制度를 分野別로 나누어 調査하도록 任務를 賦與받고 그 成果를 整理한 『視察記』類의 報告書를 남겼다.<sup>12)</sup> 이밖에 朴定陽의 『從宦日記』와 魚允中의 『隨聞錄』, 李鏞永의 『日槎集略』等 朝士들이 남긴 記錄이 많다. 이 記錄들은 그들의 活動이나 對

10) 崔德壽, 「開港 以後 國際關係와 對外認識」 『韓國歷史入門』③, 韓國歷史研究會 編, 풀빛, 1996.

11) 許東賢, 「1881年朝士視察團研究-日本見聞報告書의 內容을 中心으로-」, 高麗大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本論文은 「近代韓日關係史研究」(國學資料院)으로 刊行되었다.

12) 朴定陽은 「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附錄『農商務省職掌事務』)·「日本國內務省各國規則」·「日本農商務省各國規則」을, 嚴世永은 「日本司法省視察記」를, 沈相學은 「外務省」을, 魚允中은 「日本大藏省職制事務章程」을 남겼다. 이밖에 稅關事務調査를 맡은 閔種默·李鏞永·趙秉稷이 通商과 稅關運營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여 閔種默은 「日本國際條例目錄」·「各國條約 等」을, 趙秉稷은 「稅關事務」를, 李鏞永은 「貿易章程」等을 남겼다. 姜文馨은 「工部省」을, 趙準永은 「文部省」을, 洪英植과 李元會는 各各 「日本陸軍總制」와 「日本陸軍操典」을 남겼다.

日認識 및 改革構想을 究明할 수 있는 貴重한 資料이다.

明治維新의 發展相을 紹介한 朝士視察團의 各種 日本見聞記는 活字化되어 流布되지는 않았으나 開化派 人士를 비롯한 識者層에게 커다란 反響을 불러일으켜 開化運動이 促進되었다. 實質적으로 朝士視察團이 蒐集해온 日本의 各省의 制度에 관한 『視察記』類는 1881年 11月 統理機務衙門의 機構改編時 參考가 되었다 또 朝士들은 그들이 調査한 日本의 各省과 有關한 各司의 實務擔當者로 選拔되어 그들이 習得한 知識을 活用할 수 있었다. 즉 朝士들은 日本視察을 통해 갖게 된 日本觀을 바탕으로 明治維新을 거울로 삼아 富國強兵을 이룩하려는 改革構想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의 對日認識과 改革構想은 그들의 歸國後 朝鮮政府가 推進한 1880년대의 近代化政策에 反映되었다.

이 研究의 의의는 朝士視察團의 活動全貌를 밝혔다는 점 外에도 그동안 韓日關係史나 韓國開化運動史研究에서 그 史料的 價値가 看過되어온 朝士視察團員들의 日本近代 文物에 관한 各種 記錄을 빈틈없이 分析하고 再照明하였다는 데에도 있다. 金玉均·朴泳孝 등 初期開化派가 남긴 著書나 回顧錄이 稀少한 점을 고려할 때, 資料의 價値를 새로 發見한 이 研究는 韓日關係史 研究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였다고 하겠다.